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오늘 오후집회는 동호회입니다.

교회학교 부장회의가 예배 후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2013년 부활절 세례·입교교육이 열립니다. 세례교육, 유아 세례교육은 16일(토) 오후2시, 입교교육은 23일(토) 오후 2시 도서관에서 열립니다.

봄학기 성서학당이 12일(화) 저녁 7시 30분에 개강합니다. 3월은 요한복음(김재홍 목사), 4월은 마태복음(이범석 목사), 5월은 마가복음(신진식 전도사)을 공부합니다.

중구용산지방에서 필리핀에 개척한 참빛한인교회 설립예배를 인도하러 다녀옵니다.

유경순 권사의 어머니 장례와 민병배 집사의 어머니 장례를 엄수했습니다.

사순절 기간에는 사순절 달력에 있는 신앙실천을 따라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수 5:9~12 / 시 32
고후 5:16~21 / 눅 15:1~3, 11b~32

눅19:1-10

오늘 식당 봉사 : 박홍재 차혜심 허명선 정연희 한상경 오정은 정선희 이광욱
다음주 식당봉사 : 박효선 허정운 홍복선 임미심 김문주 왕영순 정복순 이성범
오늘설거지봉사 : 강세기 이소애 변재민 이소혜 이선화
다음주설거지봉사 : 홍순구 박해남 김영아 정윤성 서효진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 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 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09:30	교육관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청파교회



생명의 바람, 평화의 물결 되어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일 낮 예배 순서

자비하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삶과 고난의 의미를 깊이 헤아리지 못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만 안 아프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며 다른 이들의 아픔과 고통에 무감각한 우리의 두꺼운 마음의 껍질을 벗겨 주십시오. 살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회복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또다시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있는 한반도를 굽어 살피주십시오. 남과 북의 대화가 단절되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금방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것만 같습니다. 평화의 주님,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강한 팔로 막아주셔서 다시 이 땅이 지옥이 되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 헌금 영수기 ·

십일조 및 월정헌금:

강인식	김정숙	구명자	권미정	김문주	김성한	조영순	김세룡	김승현
김수진	김신실	김연실	김영순	김은정	김인걸	문영혜	김일랑	김은옥
김정길	최숙화	김종락	박영신	김종문	김종철	고영애	김철수	유영남
문금석	문복순	박경원	박시내	박옥순	박옥식	박용진	김용원	방극숙
배재경	이수정	백묘현	안보혜	오자영	오재영	오진훈	노순옥	원요일
윤성종	김윤정	이계선	이소순	이광섭	이국노	김민화	이근식	신영신
이민범	공재량	이범석	류정욱	이성범	권현숙	이순용	이예서	이용규
노지현	이용현	이용숙	이우원	옥귀희	이윤석	박안수	이재훈	이주영
이주영	이지훈	장근성	박희순	장아름	장재영	김재영	전희수	정복순
정연희	조경자	조문규	진정숙	최다미	최윤희	최현선	한규숙	한상의
정영선	허명선	홍선희	홍순구	안홍숙	홍춘숙	무명		

감사헌금:

강혜실	전누리	권미정	김철수	문복순	민동혁	김수은	박범희	손성현
안경아	원주신	이춘재	전웅	정현모	최미혜	한인철	조윤숙	홍복선
무명3								

녹색꿈헌금:

구성실	김영학	김현주	김정진	김혜정	박옥식	양재성	이영순	무명4
-----	-----	-----	-----	-----	-----	-----	-----	-----

생일감사헌금:

김준호	김지윤	김필순	정완수
-----	-----	-----	-----

	장혜숙	백혜숙	송임희	정두리
	노순옥	박성희	김윤옥	박재란
	김재흥	최경미	이은옥	정복순
	장영숙	신영신	문영혜	박경원
	정경례	진정숙	조병주	안정숙
	박홍재	곽권희	곽권희	백묘현
	권미숙	박미영	권미숙	허정윤
	이순정	김금순	이순정	김금순
	이형숙	윤수진	김필순	구성실
	안홍숙	오현정	정현주	이수정
	정영선	서정순	송양진	정영선
	박혜경	조향미	송현숙	이정기
	김재흥	오자영		
	이범석	이근식		
	신진식	곽상준		
	장영숙	김세진		

마음으로 읽는 글

바닷가에서

사는 길이 높고 가파르거든
 바닷가/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를 보아라
 아래로 아래로 흐르는 물이
 하나 되어 가득히 차오르는 수평선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자가 얻는 평안이
 거기 있다

사는 길이 어둡고 막막하거든
 바닷가/ 아득히 지는 일몰을 보아라
 어둠 속에서 어둠 속으로 고이는 빛이
 마침내 밝히는 여명
 스스로 자신을 포기하는 자가 얻는 충족이
 거기 있다

사는 길이 슬프고 외롭거든
 바닷가/ 가물가물 멀리 떠 있는 섬을 보아라
 홀로 건디는 것은 순결한 것
 멀리 있는 것은 아름다운 것
 스스로 자신을 감내하는 자의 의지가
 거기 있다

- 오세영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이범석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손성현 신진식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소속전도사 : 이재훈
원로장로 :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유청빈
차량 및 교회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혜경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우리의 삶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들과 힘써 싸우십시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빛으로 드러나도록 애쓰며 사십시오. 그것이 끝없이 깊은 지옥의 어둠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신 것을 잊은 채 어둠속에서 헤매며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믿음의 빛을 밝히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참된 빛을 가지고 우리의 내면과 세상의 깊은 어둠을 밝히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동호회	설교 : 김재흥 목사 기도 : 이현순 집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신진식 전도사 김기석 목사	공동기도 조병무 장로	장성호 선생 김기성 집사

3월	영접위원	한완식 김용진 정한구 박효선 왕영순 김금순
	헌금위원	김인걸 이순정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믿음으로 읽는 글

스코트 바더 공동체

어니스트 바더는 스코트 바더사를 30세 때인 1920년에 창립했다. 그는 2차세계대전 기간에 수많은 시행착오와 고난을 극복한 후에, 31년 후에는 161명의 종업원에 연 매출액이 약 62만5천 파운드이고 순이익이 7만2천 파운드 이상의 중기업을 키워냈다. ... 고용주의 위치에 오른 날에도, 그는 자신의 성공과 번영이 자신만의 업적이 아니라 모든 동료들의 업적이며, 게다가 분명코 자신에게 사업할 수 있는 특혜를 베풀어준 사회의 업적이기도 하다는 점을 결코 잊지 않는다.

그는 '기업을 인간의 필요에 맞춘다는 철학에 기대어' 자신의 기업에 '혁신'을 시도하기로 결심했다. ...

첫째, 회사는 모든 종업원의 전체 모습을 그려볼 수 있도록 작은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 종업원이 350명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선을 넘는 경우, 스코트 바더 공동체처럼 완전히 독립적인 새로운 조직 단위를 만들도록 도와주는 방식으로 그 상황에 대처해야 한다.

둘째, 조직 내부에서 일에 대한 보수는 최저 수준과 최고 수준의 격차가 나이, 성별, 직무, 경험에 상관없이 세전 기준으로 1대 7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셋째, 공동체 성원은 종업원이 아니라 동료이므로 중대한 개인적 과오를 저지르지 않는 한, 어떠한 이유로든 다른 동료들로부터 해고당할 수 없다. 물론 적당한 통고 절차와 함께 자발적으로 물러나는 것은 언제나 가능하다.

넷째, 스코트 바더 이사회는 공동체에 대해 완전하게 책임을 진다. 기본 규정에 명시된 규칙에 따르면 공동체는 이사의 임명을 승인하거나 거부하며, 이사의 보수 수준을 승인하는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다섯째, 공동체는 스코트 바더사의 순이익의 40%이상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 즉 최소한 60%는 납세와 재투자자를 위해 스코트 바더사 내부에 유보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동체는 이익의 절반을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보너스로 지급하고, 나머지 절반을 외부 자선단체에 기부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코트 바더사의 제품 중 그 어느 것도 전쟁과 관련된 목적을 위해 사용할 것으로 알려진 고객에게 팔아서는 안 된다.

어니스트 바더씨와 그의 동료들이 이러한 혁신을 시도했을 때, 사람들은 집단소유와 스스로 부과한 제약조건에 기대어 운영되는 회사가 오래 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거리낌 없이 예상하곤 했다. 그런데 실제로 이 회사는 어려움 - 심지어 위기나 실패까지 - 을 겪긴 했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 튼튼해졌다. ...

오히려 이 기업의 장점은 정확히 그것이 돈벌이 기준 외부에 놓인 목적, 즉 통상적인 돈벌이 행위에서는 흔히 부차적인 의미를 갖거나 완전히 무시되는 인간적인 목적을 달성했다는 데 있다.

공동체는 사회에서 기업의 임무가 단순히 돈을 벌고 이윤을 극대화하며 강력해지도록 성장하는 게 아님을 인정하게 되었다. 오히려 공동체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임무를 인정했는데, 이것은 모두 똑같이 중요하다.

경제적 임무 : 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 제조, 서비스를 담당하는 것

기술적 임무 : 계속해서 신제품 설계를 제공함으로써 시장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게 하는 것

사회적 임무 :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노동공동체에 대한 참여를 통해 만족감을 얻고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

정치적 임무 : 다른 사람들에게 경제적 건강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유지하는 사례를 제공함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는 것

우리는 오랫동안 사업 내부에 기독교적 생활방식을 뿌리내리고자 노력했는데, 그 과정에서 얻은 경험이 상당한 자극제로 기능하면서 제품의 질과 양 측면만이 아니라 인간관계 측면에도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이제 우리는 좀 더 노력해서 지금까지 이룩한 것을 집대성하고, 신과 이웃에게 봉사하는 좀 더 좋은 사회를 위해 구체적으로 공헌하고자 한다. - 어니스트 바더

- E. F. 슈마허, 「작은 것이 아름답다」 중에서